

【서 평】

표현적 개인주의와 현대 미국의 종교의 특징

Charles Taylor, *Varieties of Religion Today: William James Revisit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김 선 옥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I

보기와는 다르게 속 깊은 사람을 일컬어 “양파(onion)”라고 부르는 영어의 표현이 있다. 보이는 표피를 한 껍질 벗기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긴 비유적 표현이다. 찰스 테일러는 이 비유에 아주 적합한 사상가라고 생각이 된다. 우리에게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적 사상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 표피를 한 껍질 벗기면 그 표면 아래에 깊은 형이상학적, 또는 종교철학적 지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Varieties of Religion Today: William James Revisited*는 이 깊은 층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형식적으로는 약 100년 전에 출간된 미국의 실용주의 사상가 윌리엄 제임스의 저서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의 재검토이다. 당시 윌리엄 제임스는 이 책의 내용을 에딘버러 대학의 기포드 강좌에서 강연을 했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99년에 찰스 테일러가 같은 강좌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주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는 이 작업을 통해 오늘날 미국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양상의 종교의 모습, 그리고 그것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있는 통찰에로 나아간다.

찰스 테일러의 철학적 작업의 근본적 지향점은 공동체주의적 이해에 바탕을 둔 사회사상의 정립이다. 그런데 테일러를 공동체주의자라고 규정할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체주의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이 말은 개인보다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우선적인 관심을 쏟고 거기에 봉사하며 기여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은 다른 공동체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자신의 속한 공동체 의식을 확장하면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포괄적 공동체 개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공동체주의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공동체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이를테면 언어나 인종 집단처럼 구별되는 분리주의적 태도는 결국 지역적 이기주의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후자의 의미에서의 공동체주의에는 철학적 입장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공동체주의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테일러는 전자의 입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처럼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테일러의 입장은 종종 “자유적 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테일러는 공동체들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도 개인적 정체성의 다양성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상대주의로 나아가지 않고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공통의 가치를 추구한다. 다양한 공동체간의 상호 인정과 수평적 존중을 통해 공존을 추구하려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갈래로 나누어진 공동체들을 상보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파편화된 개인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다 높은 질서” “보다 큰 존재”를

1) 테일러의 사회사상에 대한 개괄은 줄고 “자유적 공동체주의자 찰스 테일러” 《에버지》 2003년 1월호 참조.

테일러는 자주 언급하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 표명된 종교에 대한 테일러의 관심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II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를 개인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경험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종교를 종교적 체험(religious experience)과 종교 생활(religious life)로 구별하였다. 전자는 개인이 고립된 차원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행위를 말하며, 후자는 공동체나 교회와 연관을 갖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에 대한 충성은 종종 국가에 대한 복종과 연결되기도 한다. 제임스는 열병처럼 경험되는 종교적 체험이 일차적인 것이며 신학이나 철학, 종교 기관 등과 같은 것은 파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껏해야 개인의 종교체험에 바탕을 둔 이차적 형성물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5). “기껏해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제임스에 따르면 교회가 오히려 원초적인 종교적 체험에 대해 부정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적 영성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지성을 통해 일반화된 종교 생활과 예식에는 생명이 없다고 보았던 제임스의 종교관에는, 행위의 근원은 이념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잘 나타난다. 감정은 합리화 과정이 없이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와 연관해서도 종교가 산출하는 이론은 변경 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오히려 감정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임스는 주장한다(8).

제임스가 주목한 개인과 체험 중심의 종교관은 사실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온 경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컨대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를 전면내 내건 종교개혁은 구교의 제의적 종교 행

위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후의 신교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에 대한 구교의 반성적 태도에서도 개인의 체험과 헌신에 대한 강조가 일반적으로 파급된다. 이러한 개인 지향적 종교 행태는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종교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테일러는 지적한다. 또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가톨릭 사회에서는 초기 기독교에서 볼 수 있었던 개인적 헌신과 집단적 의식에 대한 상보적 이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종교의 개인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역시 북미 지역이며, 북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제임스가 강조한 개인적 종교를 종교의 진면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일반적임을 테일러는 지적한다. 미국 초기 공화정 때의 정교 분리는 이 같은 개인적 종교의 오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던 것이다(14).

테일러의 입장에서 보면 제임스의 종교 이해는 일면적이다. 제임스는 개인이 교회나 성례전적 행위를 통해 신성의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테일러는 비판한다. 또 신자가 개인적 헌신을 통해 준수하려는 것이 대부분 본질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모든 종교적 경험도 언어로 표현되는데 이 언어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습득되고 전승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제임스의 종교 이해의 개인주의적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27).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신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종교의 전부라고 해도 신앙의 선언이나 결단의 초청 등은 이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도 테일러는 지적한다.

III

제임스가 비록 종교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종교 이해는 보다 깊은 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그의 시야 또한 자신이 이해한 것보다 넓다고 테일러는 평가한다. 우선 제임스는 우울감에 빠져 있는 현대의 병리적 현상과, 의미의 지평의 상실로 인해 선악

의 구별이 모호해진 가운데 악의 현상에 집중하는 보들레르와 같은 현대 문학의 근원을 종교적 차원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제임스는 정신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첫탄생”과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첫탄생이란 맑고 건강한 정신의 상태를 말하며 명랑성을 간직한 상태이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병든 정신도 존재한다. 흔히 건강한 정신과 병든 정신을 구별하면 건강한 정신에 대한 예찬으로 이어지지만, 제임스는 오히려 병든 정신이 더 심오하고 영감이 넘친다고 지적한다. 병든 정신은 우울감 속에서 현대 사회의 무의미성과 개인의 죄와 종교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34). 병든 정신이 우울을 경험하면서 반대편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한다. 거듭남을 통해 내적 확신 상태가 이룩되고 모든 사물들이 의미 충만한 것으로 느껴지며 세계가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보다 큰 생명과 힘에 연결된 느낌을 얻게 된다. 이 거듭남의 체험은 가장 긴박한 영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와 같은 개인의 죄와 그로부터의 구원의 경험은 오늘날 크게 확산되고 있는 종교적 경험이다. 요즈음 이러한 차원의 경험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파급속도의 급속한 증가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이슬람도 이와 비슷한 증가 속도를 보이지만, 이슬람의 경우는 출산에 의한 자연 증가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회개에 의한 개종 속도는 복음주의 기독교가 최고라고 할 수 있다(38).

거듭남의 경험은 개인적 신앙의 핵심이다. 제임스는 이 점에 대한 설명을, 클리퍼드가 주장한 신앙 윤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설명한다. 클리퍼드의 신앙 윤리란, 어떤 이론에 명백한 증거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이론을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임스는 지성으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성으로 결정하지 말고 자신을 그것에 열어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의 진리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신앙이 바로 이러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다른 예로는, 사회 안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들고 있다. 신뢰의 가치는 신뢰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앙의 요구가 기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혀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앙이 기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겠다는 결정은 신앙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48).

클리퍼드의 신앙 윤리가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유에 기반을 둔 것 같아도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제임스의 논변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여 신자가 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고, 이성적 사유가 종교 문제에 대해 반드시 불가지론적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제임스의 이러한 논변이 오늘의 북미의 종교 현상에 대한 이해를 열어 주고 있다는 점이다.

IV

현대 북미 지역의 종교적 특성은 서구의 세속화의 흐름과 함께 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서구의 세속화는 기독교 문명의 종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기독교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의 새로운 시작으로 테일러는 이해한다. 한편으로는 현대의 공적 생활에서 세속화와 중립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폭이 거의 없어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는 제임스의 통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적 결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집단적 정체성에 대해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가 신의 설계에 따르는 사회를 건설한다면 그 사회에는 신성이 현존하는 것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는 마치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경우에서 보듯 우주는 신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설명된다(67).

도덕 질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도덕 질서는 개인에게서 출발하며,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보다 고차적인 위계질서에 개인이 종속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들이 연합을 하는 방식에는 신적 설계가 잠재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 설계란 존 로크의 경우에서 보듯, 개인은 서로에게 상호 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신이 우리가 사는 방식을 설계한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신 아래 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로버트 벨라의 “시민 종교”라는 개념으로 잘 표현된다고 테일러는 지적한다(68). 미국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놓고 사용하는 이 개념은, 역사는 신의 세계가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무대이며, 미국은 이러한 실현이 완성되는 장소라는 생각을 말한다. 법이 타당성을 갖는 것은 그것이 신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종교의 성격, 그러나 “시민적” 종교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기독교의 교파주의적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파는 사회 구성원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교파와 다른 교파의 차이를 구원과 저주의 문제로 차별화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종교적 적법성의 한계 내에서의 것이지만, 이러한 한계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교파는 마치 동호인 집단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이처럼 상호 인정하는 교파들을 포괄하는 느슨한 성격의 포괄적 교회(the church)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교파주의의 바탕에 있다(75). 이것이 “시민 종교”의 예에서 보듯, 국가에 대해서도 “신 아래의 민족”과 같은 개념을 형성하는 길을 열어 준다. 따라서 교파적 정체성이 종교-국가를 분리하면서도, 동시에 현실 정치체는 포괄적 “교회”와 동일시 될 수 있고, 이것이 또한 한국

가의 애국심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테일러는 현대 북미 종교의 경향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개념 장치로서 종교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의 입장을 이용하여 원-뒤르켐적 양식과 신-뒤르켐적 양식, 그리고 탈-뒤르켐적 양식을 구분한다(75). 신이나 영원과 같은 종교적 이념과 장치를 중심으로 정치와 국가의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를 원-뒤르켐적 양식이라고 하고, 근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등장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현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위에서 설명한 종교와 국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은 신-뒤르켐적 양식으로 표현된다. 근대의 발전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원-뒤르켐적 양식에서 신-뒤르켐적 양식으로의 명백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는데 이를 테일러는 탈-뒤르켐적 방식이라고 명명한다.

V

1960년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미국 문화에 새로운 혁명적 변화, 즉 개인화의 혁명이 일어난다. 테일러는 이 새로운 개인주의를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부른다(80). 표현주의는 18세기말의 낭만주의의 산물로 새로운 흐름은 아니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는 대중적 현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 테일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차대전 후의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미국에는 점차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사람들은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였고, 풍부해진 소비재와 서비스산업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사적 공간을 형성하며 이 공간에서 자신만의 취향을 표현하고 즐기려는 경향이 일반화된 것이다. 이 경향은 특히 청년들을 상대로 한 상품 시장의 확대에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소년과 성인 사이의 연령층으로 청소년층이 새롭게 형성되

었다. 물론 과거에도 부유층에서는 청소년기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일반 노동 계층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인정이 없었기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대한 인식은 근래에 발생한 새로운 현상인 것이다. 이 청소년 문화는 표현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문화를 테일러는 진정성(authenticity)의 문화라고 명명한다(83). 우리들 각자에게는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진정성 문화의 핵심인데, 이는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외적 권위가 부과하는 모델에 대한 순응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발견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진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청소년 문화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 즉 자신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 의식은 특히 패션의 영역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다. 패션의 세계는 나와 상대가 동시에 자신을 표현하면서 공통의 언어를 형성해 가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수평적이며 동시적 상호 현존의 구조가 이룩되는데, 이러한 상호 현존은 공동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현시를 말한다(88). 나의 패션을 통해 나의 성향과 의도를 전하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 현시를 이루며 소통해 가는 차원이다. 이와 같은 동시적 상호 현시의 가능성이 함축하는 것은 개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새로운 공존 양식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탈-뒤르켈적 양식이 등장한다.

탈-뒤르켈적 상황에서의 종교적 삶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선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종교는 나에게 확증적이어야 하며, 내가 이해하는 나의 영적 발전 단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로 오는 종교적 통찰에 주목하지만, 보다 넓은 무엇(포괄적 '교회'나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전의 냉정하고 엄격한 신앙 태도에서 감정과 정서를 강조하는 감동 있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 태도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순전히 지적인 전통 신앙의 냉정한 태도는 종교의 핵심을 상실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처럼 감정에 주목하고 종교적 통

찰을 따르되 이것이 다소 정통 교리와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영감을 저버리지는 않으려 한다(101). 이러한 태도는 다원주의를 내장하고 있다. 나의 종교 노선은 다른 사람의 노선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종교가 종교로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선험적 원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이러한 탈-뒤르켕적 상황이 원-뒤르켕적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도덕적 다수”나 “기독교인의 권리” 운동은 이러한 투쟁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테일러는 최근 미국인들의 사회적 상상력이 점점 탈-뒤르켕적 시대로 나아가며, 이와 더불어 뒤르켕적 체제가 불안정하게 되고 기초가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관계는 점차 이완되어 문화의 파편화 현상이 생기고, 새로운 소비자 문화를 통해 이러한 흐름은 폭발적 현상으로 될 것이라고 테일러는 예견한다(107).

탈-뒤르켕적 양식은 종교에의 귀속과 정치-사회에의 귀속의 분리와 이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개인의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또한 탈-뒤르켕적 양식은 우리가 맺는 종교와의 관계가, 그 종교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의 집단적 관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새로운 개인주의는 형식에서는 개인주의이지만 내용에서도 반드시 개인주의화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강력한 종교적 공동체에 참여하더라도,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감각에 의해 이끌리기 때문이다. 강한 영적 호감과 맹목적 통찰에서 종교 생활이 시작되더라도 그 종교적 삶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전통적 형식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물론 이 가운데는 종종 좋은 감정과 피상적 차원에만 머무는 결과도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말이다.

결론적으로 테일러는 탈-뒤르켕적 양식에서 신-뒤르켕적 양식으로, 그리고 원-뒤르켕적 양식으로 되돌아 갈수는 없다고 생각한다(114). 새로운 개인주의는 천박성과 피상성이라는 일탈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일탈 현상이란 모든 다른 체제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있

있던 일치에 대한 강요에는 위선, 무능력, 복음에 대한 내적 반감, 신앙과 권력의 혼돈 등이 영적 대가로 지불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테일러는 지적한다.

VI

제임스의 종교관에 대한 검토에서 현대 미국 종교의 경향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는 테일러의 논의는 종교에 대한 테일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나아가 공동체주의적 논의의 기반에 깔린 깊은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의 관점에서 어떻게 시대에 대한 통찰을 열어 가는지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새로운 개인주의적 경향에서 발생하는 탈-뒤르켐적 양식의 종교와 정치의 연관성의 변화에 대하여, 동시적 상호 현존의 방식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적 의식의 발현이 동반한다는 통찰을 보여주는 것은 탁견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테일러의 시대적 통찰은 신앙적 관점과 어우러져 형성된 그의 경론에 쌓인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 통찰을 지혜라고 부른 것은 테일러의 지적과 그의 관점이 오늘날 북미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테일러의 논의가 치밀한 논증적 기반에 서서 전개되기보다는 사회학적, 역사적 전거들을 통시적으로 아우른 관점에서 형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에 대한 보다 엄밀한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보다는 오히려 이론적 갈증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테일러가 현재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 서구의 세속화 과정에 대한 큰 분량의 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